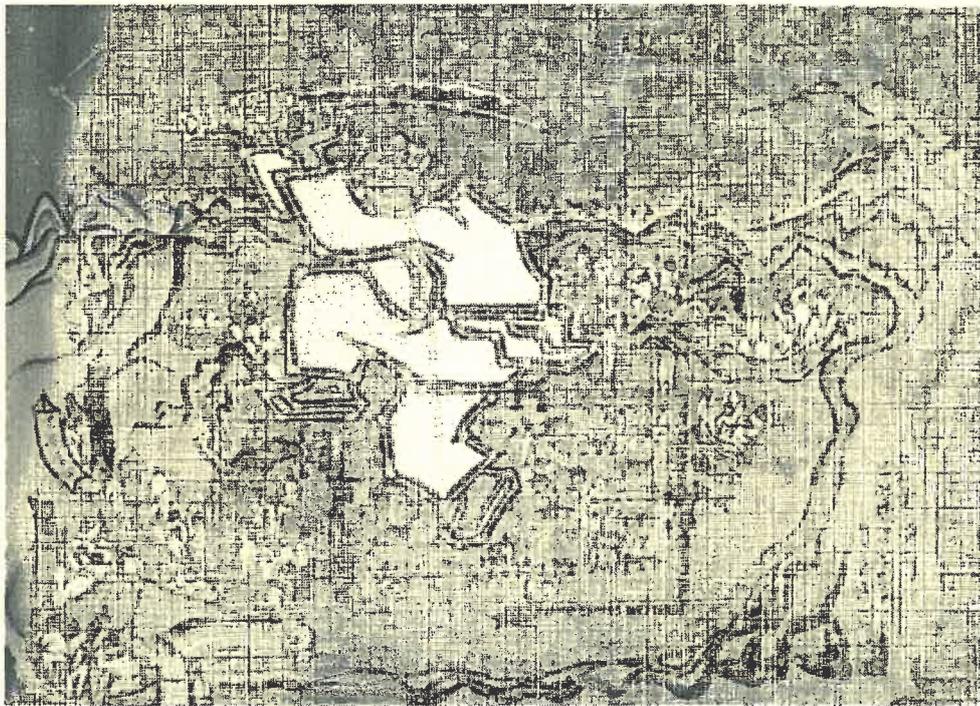


# 전라좌도동학농민혁명

## 제 4 회

### 추모제/천도재 및 표석 제막식



2009. 11. 21

방아치 전투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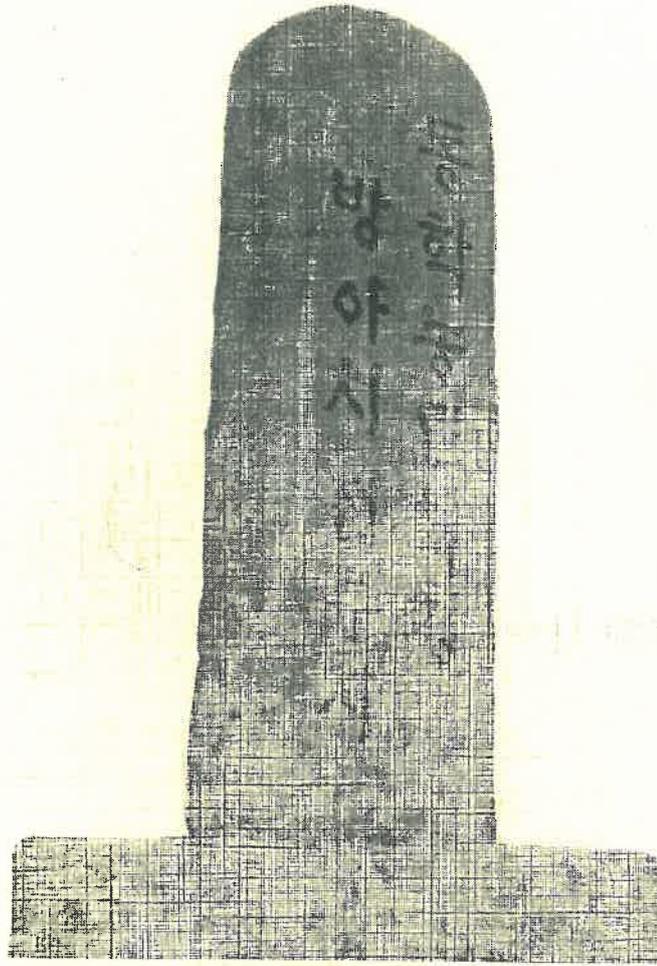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우 590-050/남원시 향교동 1046-2

/전화 063-633-6662

이메일 nwksss@hanmail.net

/전송 063-632-6660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우 590-050/남원시 향교동 1046-2

이메일 [nwkses@hanmail.net](mailto:nwksss@hanmail.net)

/전화 063)633-6662

/전송 063)632-6660

斥洋斥倭  
 輔國安民  
 除暴救民  
 廣濟蒼生

순서

목차	1
추모제 · 천도재 행사 순서	2
<축사> 다시 밝혀드는 동학의 햇불	3
축문	4
인사말씀	5
남원동학, 농민혁명 순례벨트	7
각 유적지 문안	8
교룡산, 방아치전투지 입구	
요천변, 백두대간, 쪽뜰	12
행사장 안내도	13
전라좌도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박맹수)	24

# 전라좌도 남원 동학농민혁명

## 제 4 회 추모제/ 천도재 식순

때 : 2009. 11. 21(토요일) 14:00~18:00

곳 :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방아치 전투지 입구

### ◎ 추모제/천도재

- 동학 추모제 :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 전통 추모제 :
  - 초헌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독축
  - 아헌 : 산동면 면장, 시의원, 부절리 이장
  - 종헌 : 시민·사회 단체 회원

### ◎ 천도재 : 원불교 남원교당 : 교감 서위진님 주관

### ◎ 추모공연

- 축시 낭독 : 복효근 시인 · 금지중교사
- 인사말씀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진혼창 : 남원시립국악단
- 진혼무 : ”
- 진혼가 : 정은미 명창, 고명숙 가수, 김소현 판소리문화학교 아이들
- 풍물 : 전라좌도 남원굿 「화목회」

### ◎ 음복

※ 「동학농민 유적」 쪽뜰(藍坪) 표석 제막식

2009. 11. 21 : 10:00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남평마을

## 다시 밝혀드는 동학의 횃불

복 효 근(시인, 운봉중 교사)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제 오늘도 아니고 백년도 훨씬 전에 그랬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고요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하면서 약소국가의 등은 다 처먹은  
저 영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무지렁이 우리 백성들이 그랬답니다  
사람을 하늘로 떠받들기 위해서  
사람이 하늘처럼 고귀해지기 위해서  
하느님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헌 짚신짝 버리듯 떨쳐버리고  
횃불을 밝혀들었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밝히려겠다고 일어섰답니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외치며  
제폭구민 외치며  
피고름 넘치는 이 땅의 상처 깊숙이  
죽창을 쭈셔넣었더랍니다  
그리고 피 흘리며 죽어갔더랍니다  
깃발이 찢겨지고 그 날의 함성이 잦아든 뒤로  
백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 어둠은 끝나지 않았습디다  
어디 양(洋)과 왜(倭)놈들뿐이겠습니까  
우리 혼과 넋은 사라진지 오래  
자본의,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외치는 신음 소리 거리에 가득합니다  
오늘이 그러할수록  
다시 “사람이 하늘입니다”  
사람을 하늘로 여기지 않은 사랑이라면  
성춘향도 개똥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변강쇠도 밭정 난 똥개입니다  
홍부도 빌어먹을 부지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사람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찢어진 깃발을 수습합니다  
사람이 하늘일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일 때까지  
이제 다시 꺼진 횃불을 밝혀드립니다

# 祝 文

維 歲次

東學農民革命 115週年 檀君紀元 4342年 11月 21日

南原東學農民革命紀念事業會員一同 敢昭告于

全羅左道東學農民革命 殉節 英靈 諸位府君

해마다 삭풍이 낙엽을 휘몰아 가는 이 때면 옷깃이 여미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추워서 만이 아니라 무명옷조차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신 선열들께서 죽창을 거머쥐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산등성이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함성을 내지르며 치닫던 처절함이 가슴을 저며 오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과 봉건 탄압으로 학대 받고 수탈당하면서 생명으로 태어나 공평하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대접 받지 못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사람이 하늘이고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이라는 권위와 존엄을 되찾으려는 그 숭엄한 의연함과, 썩어 내려앉는 국권을 통째로 먹어치우려는 일제의 야욕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과 처절한 몸부림이 살아 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선열들이시어!

한 세기가 지나고도 15년이 더 지난 지금 선열들께서는 이제 한시름 놓고 후배,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과업을 내려다보시고 계시은지요? 떨었습니다. 땅 덩어리는 토막 난 채로 고통스럽고, 국권은 차압 된 상태이며 민권은 억류하고, 빈부는 격화되고 있으며 국토는 속살까지 짝혀 나오고, 아이들은 경쟁으로 노동은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열들이시어!

이제 더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 흘리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와 화합과 해량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상생과 평화를 구축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尙 饗

## 인사 말씀

초겨울에 접어들어 날씨도 차가운데 바쁘신 일정을 쪼개 참여해 주신 남원시민, 특히 산동면과 부절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 추모제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을 멀다 앉으시고 찾아다니시며 동학농민혁명 선양에 힘써 주신 유족회 여러분, 표석 제막 건립을 도와주신 남원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추모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종 시설과 음향 등에 애써 주신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15주년이 되는 올해는 저희 사업회가 발족한지 5년째이면서 추모제와 천도재를 모시면서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순례 벨트를 위한 표지석 건립을 시작한지 4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순례 벨트는 이제 그 윤곽을 희미하게나마 드러내고 있습니다. (7면 참조) 교통산 은적암에서 남원시가지를 거쳐 운봉 일원에 이르는 이 순례 벨트는 동학농민혁명의 전라좌도 농민군을 총 관장했던 우리 남원의 당시 역사를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그 혁명 정신을 되새기고 선양하는데 큰 바탕이 될 것이며 남원을 찾는 동학과 농민혁명 관계의 모든 분들께 순례의 장으로 활용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원정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남원의 정신문화를 선양하고 관광자원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던 금년 여름 대단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민혁명 당시 영남권역을 진출하려는 전라좌도 농민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백면 남계리 쪽뜰 표석 건립을 추진하던 중, 농민군이 깃대를 세우고 깃발을 날리며 승리를 다짐했던 '깃대바위'가 남평마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혁명 이후 무서운 탄압을 받다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어두운 역사 때문에 농민군의 역사적 자료는

거의 사라져버려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남원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깃대바위라는 유물을 찾아냈다는 것은 우리 남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군 역사상 뛰어나면서 귀중한 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회에서는 내년에 이 깃대 바위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표석 건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가운 것은 지형적으로 어려운 여건(은적암, 방아치)이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서형칠 약방:광한루원 내, 박봉양 공적비:운봉읍 서천리 당산) 여러 역사적 사실이 동학농민혁명 표석만 세우기 어려운(구.남원역, 구.군청)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벨트가 완성 된다면 남원은 지리산 둘레길과는 또 다른 한차원 더 높은 정신문화 순례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남원시가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순례 벨트가 남북을 축으로 하고 만복사에서 창주서원까지를 동서의 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향교, 금암정 등을 더 추가하면 원형의 도보 순례 코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구슬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야 그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그 아름다움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노력이 남원의 정신문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남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보하면서 자랑스런 남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운동과 활동이 선열들의 희생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115년 전에 산화하신 전라좌도 동학농민혁명 희생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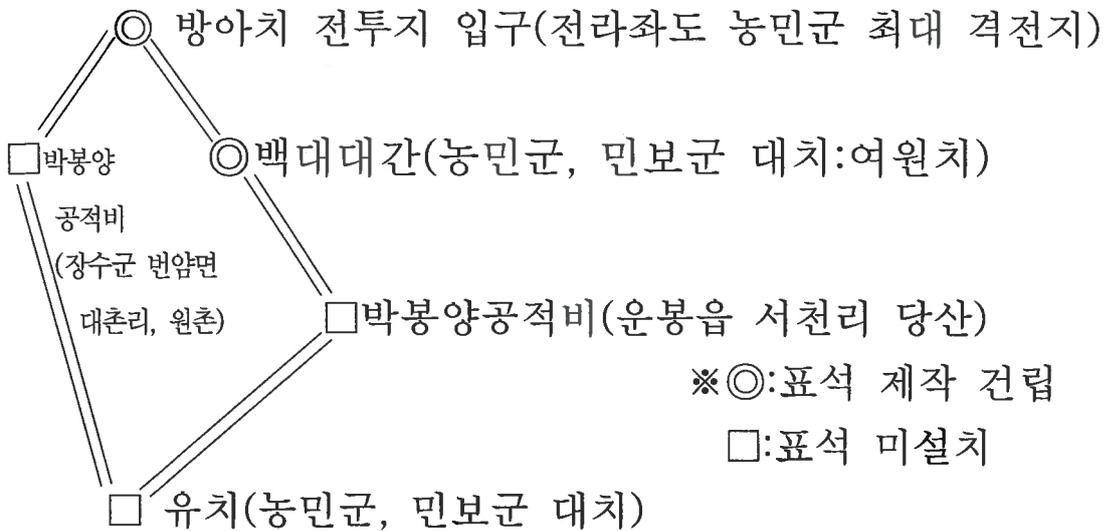
2009. 11. 21

남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일동

## 남원 동학 · 농민혁명 순례 벨트

- 은적암(수운 교조 경전 집필, 포교)
- ||
- ◎ 교통산성(농민군 주둔지)
- ||
- 구.남원역(남원성 전투 최후 퇴각지:남원성북문)
- ||
- 구.군청지(전라좌도 대도회소, 대집장소)
- ||
- 광한루원(호남동학 최초 포교지:서형칠 약방)
- ||
- ◎ 요천(농민군 훈련장)
- ||
- ◎ 쪽뜰(방아치 전투 농민군 주둔지)
- ||
- 깃대바위

※ *류희홍 원소*



##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유적지 교룡산

이곳 교룡산은 수운 최재우가 저술과 포교 활동을 하던 곳이며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남원성을 점령한 김개남군이 활동했던 곳이다.

수운은 1861 ~ 1862년 사이에 은적암(덕밀암)에 은거하면서 주요 교리의 저술과 포교 활동을 했으며 교룡산에 올라 칼노래를 부르고 칼춤을 추면서 심신을 단련하였다고 한다.

특히 논학문(일명 동학론 東學論)에서 ‘道는 天道라 하나 學은 東學’이라 해서 처음으로 ‘東學’을 명명한 곳이기도 하다.

1894년 여름,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 세력은 남원성을 점령하고 교룡산을 수축하여 무장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9월 재봉기와 운봉 민보군과의 싸움이었던 방아치 전투의 근거지였다.

2006. 11. 26

남 원 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표지석 문안

### ◎ 동학농민혁명 방아치 전투지

뒤쪽의 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 방아재전투지입니다. 당시 김개남 장군이 지휘하던 전라좌도 농민군이 북진한 후 김홍기, 최승우, 접주 등을 중심으로 경상도 쪽으로 진출하고자 11월 14일(음력) 새벽부터 15일까지 이곳에서 운봉 민보군과 수성군을 상대로 싸웠지만 영남지방의 지원을 받은 박봉양군을 물리치지 못하여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다시 남원성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이곳은 방아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2007. 11. 1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남 원 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사업회

###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변(蓼川邊)

남원의 젓줄인 이 요천변은 동학농민혁명(1894년) 당시 전라좌도 농민군을 총지휘했던 김개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과 함께 7월 15일(음력) 수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원대회(南原大會)를 개최하여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補國安民)의 기치를 드높인 역사적 장소이며, 경복궁을 침입하여 국권을 훼손하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농민군이 훈련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훈련하였던 전라좌도 농민군의 정예부대는 청주성 공격에, 남은 병력은 방아치(남원시 산동면)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원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귀 기울이면 그 때 농민군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07. 11. 17

남 원 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표지석 문안(요천변 십수정 근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변(蓼川邊)

남원의 젖줄인 이 요천변은 동학농민혁명(1894년) 당시 전라좌도 농민군을 총지휘했던 김개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과 함께 7월 15일 7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원대회(南原大會)를 개최하여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補國安民)의 기치를 드높인 역사적 장소이며, 경복궁을 침입하여 국권을 훼손하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농민군이 훈련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훈련하였던 전라좌도 농민군의 정예부대는 청주성 공격에 남은 병력은 방아치(남원시 산동면)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실패한 혁명이었고 지금은 원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귀기우리면 그 때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07. 11. 17

남 원 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여원치 표석 문안>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백 두 대 간

1894년 갑오년 당시, 남원의 서부 평야지대는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이 장악하고 있었고, 동부고원지대는 박봉양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수성군과 함께 이 능선 백두대간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다.

(음)11월 중순 남원의 대접주 김홍기를 비롯한 유복남, 남응삼 등의 전라좌도 농민군은 영남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방아치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으나 영남지방의 지원을 받은 민보군과 수성군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좌절 되었다.

갑오년 당시 이 능선을 경계로 겨루었던 농민군이나 민보·수성군 모두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기에 그 분들을 추모하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영원한 평화와 상생을 다짐하고자 이 곳 백두대간에 표석을 세운다.

2008. 11. 22

남 원 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쪽뜰(藍坪)

갑오년 동학농민혁명당시 남원에서 전라좌도 농민군을 관장하던 김개남 장군이 북상한 후에도 남원에는 1만여 농민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남원 주둔 농민군은 영남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운봉지역을 확보해야 했는데 당시 운봉지역은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과 수성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1894년 11월 13일 김홍기, 유복만, 남응삼, 유태홍 등이 이끌던 전라좌도 농민군은 운봉지역을 공격하기 위하여 적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방아치와 여원치의 갈림목인 이 곳 쪽뜰에 진을 쳤다.

깃대바위에 부대기를 게양하고 승리를 다짐하던 농민군은 14일 인시(寅時)에 방아치로 공격하였으나 영남지방의 막강한 지원을 받은 민보군에게 패배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고 15일 진시(辰時)에 퇴각하였으며 결국 남원성까지 내 주고 유랑하며 숨어 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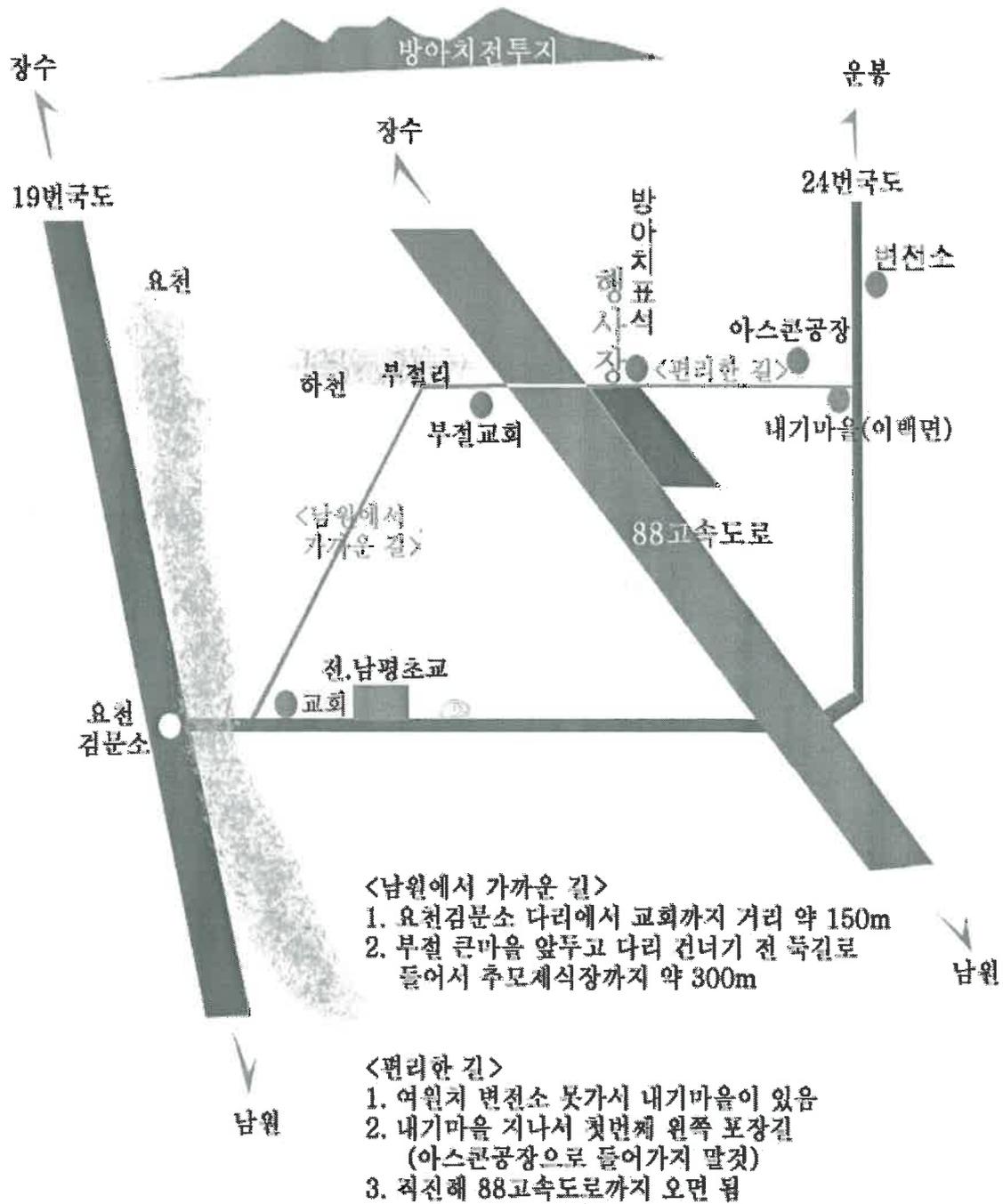
2009. 11. 21

남 원 시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쪽뜰(藍坪) : 쪽들(쪽이 많은 들) → 쪽뜰 → 쪽뜰  
쪽(藍):남색 물감으로 사용된 풀.

# 행사장 안내도



### <남원에서 가까운 길>

1. 요천김분소 다리에서 교회까지 거리 약 150m
2. 부절 큰마을 앞두고 다리 건너기 전 북길로 들어서 추모제식장까지 약 300m

### <편리한 길>

1. 여월치 변전소 못가서 내기마을이 있음
2. 내기마을 지나서 첫번째 왼쪽 포장길 (아스콘공장으로 들어가지 말것)
3. 직진해 88고속도로까지 오면 됨

# 전라좌도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의

-김개남 부대를 중심으로-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김개남 부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라좌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전봉준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전라우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비해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첫째 이유는 바로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지나치게 전봉준 중심으로만 전개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둘째 이유는 김개남이 전봉준과 대립 또는 갈등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도록 하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전봉준-김개남 갈등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라좌도 농민군의 활동을 대표하는 김개남 부대의 활동을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종래 통설이 되어 온 ‘전봉준-김개남 갈등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全羅左道 동학농민군 활동의 최대 분수령인 ‘南原大會’의 구체적 내용을 각종 사료를 통해 검증한다. 제 2장에서는 2차 봉기 이후 김개남 부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김개남 부대의 최후, 그리고 끝으로 제 4장에서는 김개남 개인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I. 南原大會의 實狀과 그 意味

집강소 통치기 및 제 2차 봉기 단계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이 이른바 ‘南原大會’이다. 김개남과 전봉준 등이 주동이 되어 전라도 일대 농민군 수만 명<sup>1)</sup>이 전라도 남원에 모여 大會를 열었던 남원대회는 그 동안에는 주로 집강소 통치기에 새로운 집강소 질서를 탄생시킨 기점으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집강소 체제강화’가 아닌 별도의 성격부여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원대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남원대회가

1) 관련사료를 종합하면, 대체로 7-8만 명의 농민군이 집결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제 열렸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남원대회 개최일자에 대해서는 그간 갑오년 유월 보름경이나 칠월 보름경이나 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논란이 되어 왔다.

남원대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사료는 黃玳이 남긴《梧下記聞》이다. 그 原文의 내용은 이렇다.

是月望間 瑋準開南等 大會于南原 衆數萬人 瑋準傳令各邑布中 邑設都所 樹其親黨 爲執綱 行守令之事 於是道內軍馬錢糧 皆爲賊有 人是之其逆謨 已成不止 爲亂民也…

이달 보름간에 봉준과 개남 등은 남원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모인 사람이 수만 인이었다. 봉준은 각 읍 포 중에 영을 내려 읍마다에 도소를 설치하고 그 친당을 세워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도내의 군마와 전곡이 모두 도적들(동학농민군)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그 역모가 이루어졌고 난민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위 내용은 《오하기문》 7월조에 실려 있다. 따라서 맨 첫 대목의 ‘是月望間’, 즉 이달 보름경이라 함은 보통 7월 보름 경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6월 보름경’이라는 주장이 거의 정설처럼 인정되어 왔다. 즉 비록 7월 조 부분에 실려 있다고는 하나 이 뒤의 기록에 6월 12일의 내용이 나오므로 ‘是月’은 6월 망간으로 볼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정석모가 남긴《甲午略歷》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6월에 관찰사는 전봉준 등을 감영에 초치하였다. 이때에 守成 군졸들은 각각 銃槍을 들고 좌우에서 정렬하였다. 전봉준은 높은 관에 麻衣를 입고 양연히 들어왔는데 조금도 기탄이 없었다. 관찰사는 官民相和之策을 상의하고 각 군에 집강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를 《오하기문》에서 앞에 인용한 내용에 뒤이어 ‘그러나 김학진은 선무관으로 온 자신의 입장을 믿고는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오히려 그들에 의지했으며 서울에 난(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이 있음을 듣고 김학진은 군관 宋司馬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남원에 들어가 봉준 등을 깨우쳐서 國難에 同赴하기로 약속하고 道人(=동학교도)을 인솔하여 전주를 共守하도록 하였다. 대개 봉준이 밖으로 외국의 침략의禍를 걱정함을 나타내고 귀화를 소리 내어 말한 고로 학진은 그를 불러 그 거취를 보려 한 것이다’는 대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是月望間’ 이후 전라관찰사인 김학진과 전봉준 사이에 일련의 교섭이 진행됐으며 그 뒤 전라감영에서 김학진과 전봉준이 직접 만나 새로운 집강소 질서에 합의했으니 남원대회의 개최시기를 6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사료를 근거로 남원대회가 6월 보름 경에 열렸다면 그 같은 남원대회는 執綱所의 성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전봉준은 전주화약 직후 5월께부터 금구 김제 태인을 거쳐 장성·담양·순창·옥과·남원·창평·순천·운봉 등 列邑을 순시했다. 面里 등에만 집강을 허용한다는 전라감사의 효유에도 아랑곳없이 동학농민군은 일부군현 집강을 임명하여 이미 폐정개혁을 단행해 나가고 있었으며, 전봉준은 그러한 지역들을 순방했던 것이다. 이 같은 순방 과정에서 전봉준은 남원에 도착하여 6월 보름 경에 김개남과 함께 남원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전봉준은 각 읍의 동학 卮에 명령을 띄워 都所, 즉 집강소를 설치해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했으며 이때부터 군마와 전곡들을 거두어들이는 등 노골적인 집강소 통치를 감행했다.

남원대회 이후부터 이른바 새로운 단계의 집강소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전까지 집강소가 군과 면의 동학농민군 세력 여하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나갔으나 이 대회에서 군현 수준의 집강소를 전라도 53개 군현에 빠짐없이 설치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집강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親黨을 세워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함으로써 집강소는 기존 지방관리의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아니라 과감하고 혁명적인 폐정개혁을 전라도 전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직접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원대회는 동학농민군들이 종전 ‘목고 쌓인 원통하고 분한 기운을 다 풀어 버리는’ 다소 감정적이고 저급한 수준의 활동을 벌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새로운 질서수립에 역점을 두는 집강소 통치행태로 한 차원높게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 이러한 집강소의 성립과 발전에서 남원대회의 획기적 중요성은 대회의 시기가 반드시 6월 보름경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하기문》에 기록된 ‘是月’은 7월로 봐야 하며 따라서 남원대회의 날짜도 7월 보름 경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이르러 거의 정설이 되었다. 물론 ‘是月’이 《오하기문》의 7월조의 내용임을 근거의 하나로 보기도 하나 우선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의 행적을 꼼꼼히 따져보면 6월 보름 경에는 남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1895년 3월 7일 있었던 심문에서 전봉준은 일본영사의 질문에 자신의 갑오년 5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의 행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문= 전주로부터 해산한 후 처음 이른 읍은 어디인가.
- 답= 금구로부터 김제 태인 등지에 이르렀다.
- 문= 처음 금구에 이른 것은 어느 날인가.
- 답= 금구에는 잠깐 지나는 길에 거쳤고 5월 8, 9일간 김제에 이르고 10일쯤에 태인에 이르렀다
- 문= 태인에 이른 뒤 거친 고을은 어느 고을인가.
- 답= 장성·담양·순창·옥과·남원·창평·순천·운봉을 거쳐 그 후 내 집에 돌아왔다.
- 문= 집으로 돌아온 것은 몇 월 며칠인가.
- 답= 7월 그믐 8월 초 간이다.

전봉준이 6월 보름 경 남원에서 농민군대회를 열고 난 뒤 순천이나 운봉 혹은 다

른 몇 지역을 돌았다 할지라도 ‘7월 그믐이나 8월 초 간에 귀향’하기까지 무려 한 달 보름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전봉준이 남원에 들어온 것은 7월 2일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한 사료가 있다. 이것은 곧 《嶺上日記》이다. 《영상일기》는 남원 유생 允範 金在洪이라는 이가 1892년 10월부터 갑오년 간 이후까지 자신이 겪고 들은 일들을 일기형식으로 남긴 기록이다. 그는 갑오년 당시 남원에 살다가 인근 어느 지역에서 ‘亂’을 피하고 있었다. 《영상일기》는 “七月二日 田賊菴頭 入南原”이라며 전봉준이 7월 2일에 남원에 모습을 드러냈음을 명확히 해준다. 이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임은 전봉준의 4차 공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봉준은 ‘日兵의 犯闕소식은 언제 어디서 들었는가’라는 물음에 ‘7월 경 남원 땅에서 들었다’며 7월의 ‘在南原’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전봉준이 참석하여 주도했다는 남원대회가 6월에 열릴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명확한 물증의 하나인 것이다. 6월 남원대회를 부정하는 또 다른 자료의 하나는 역시 《영상일기》 6월 25일자 기록의 ‘賊魁金開南 入南原 殘虐…’이다. 이는 김개남이 남원에 처음 들어선 날을 묘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6월 보름에 남원에서 대회를 치렀을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원대회는 전주화약 이후 전주성을 내준 전봉준이 열읍을 순방하던 중, 김학진의 초치에 의해 官民相和之策을 논의하고, 군현 단위 집강소의 폐정개혁을 독려하며 7월 2일 남원에 이르렀을 즈음 경복궁 침입 소식을 접한 김학진이 다시 서찰을 보내 전주의 共守를 요청한 뒤인 7월 15일에 개최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6월이 아닌 7월에 열린 남원대회는 집강소체제의 강화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선 전라도 50여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한 뒤 그 단합을 과시한 대회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까지 집강소를 통한 농민군의 통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민군 내부에서도 일부 불만세력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한 전략적 대회로 보는 견해다. 한걸음 더 나아가 7월 보름 경에 열리는 남원대회는 일본군에 의한 범절, 즉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에 의해 자극된 농민군이 2차기포를 준비하기 위한 前哨戰 성격의 집회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전봉준이 7월초에 남원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소식을 접하고, 당초부터 斥洋斥倭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었던 그가 이를 범상히 여겼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남원대회는 그간 그 개최시기와 의의, 성격 규정 등에 있어 각기 논리적 근거를 갖춘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오랜 동안 대립되어 온 것은 남원지역에 남원대회와 관련된 자료나 증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비롯하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측 1차 사료가 대거 발굴 소개됨으로써 남원대회는 7월에 열렸다는 것이 정설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 Ⅲ. 金開南 部隊의 再蜂起와 北上

2)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본 동경, 암파서점, 1998)이 대표적이다.

전봉준을 최고지도자로 한 동학농민군이 이른바 南北接 聯合部隊를 편성하면서까지 총력전을 벌였던 公州戰鬪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김개남과 손화중·최경선이 이끄는 농민군 부대가 공주전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농민군의 모든 역량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손화중과 최경선은 일본군의 후방기습에 대비하여 광주와 나주를 각각 지켜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공주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김개남의 경우는 이들과 달랐다.

제 2차 봉기를 즈음하여 전봉준과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던<sup>3)</sup> 김개남은 남북접이 연합하여 사활을 건 공주전투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동안에도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과는 다른 진격로를 통해 북상하다가, 마침내 청주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재봉기 및 북상과정에서 김개남이 보여준 독자적 행동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김개남의 이러한 독자적 노선이 전봉준의 세력을 스스로 질투하여 먼저 서울로 올라가려는 의도에서였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을 가져온 한 배경이 되었다는 인식이 대체적인 평가가 되어왔다. 실제로 2차 봉기를 앞두고 전봉준과 김개남 사이에 오고 갔던 의견과 인식의 차이나 상황<sup>4)</sup>은 이러한 평가를 설득력 있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공주전투를 즈음해 이루어진 김개남의 독자적 노선이 전봉준과의 심화된 대립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고, 근래 들어서는 이러한 평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 2차 봉기를 맞는 시점에서부터 노선을 달리한 김개남은 어떤 입장을 취해 왔으며 재봉기에 있어 그가 독자적으로 택했다는 진격로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전봉준과 입장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김개남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원대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원대회는 농민군들의 집강소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 역시 농민혁명의 역사를 관통하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계는 대회가 열린 정확한 시기나 그것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내려오고 있을 뿐이다.

갑오년 9월 들어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을 즈음,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이후에 성립된 親日開化派 정권은 일본을 등에 업고 오히려 일본의 침략정책을 강화하는 쪽두각시 노릇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더욱이 조선에 주둔한 일본

3) 이 같은 견해는 이이화 선생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이다.

4) 7월 27일(양력 8월 27일) 경에 개최된 '南原大會'에서 보여준 김개남의 주장은 전봉준 및 손화중의 입장과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군은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계책을 수립하고 있었으니 척왜척양을 부르짖고 혁명의 선두에 나선 전봉준은 더 이상 그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9월 초순 경, 대대적인 對日抗爭의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봉기 준비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그 무렵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곡식을 걷는 일뿐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전봉준은 마침내 9월 보름을 전후하여 전라도 각지의 농민군지도자들에게 통문을 돌렸다. ‘일본군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삼례로 모이자’는 통문이었다. 광주의 손화중과 남원의 김개남에게도 삼례로 와서 합세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개남은 전봉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남원을 차지하고 49일을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讖書의 내용 때문이라고 했다. 참서의 내용을 빌어 전봉준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한낱 명분 없는 핑계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전봉준과 손화중이 김개남을 남원에서 만났을 때에도, 김개남은 ‘청일전쟁의 시세를 감안해 각 고을에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전봉준의 입장이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손화중의 입장과는 달리 ‘한번 해산하면 큰 무리를 다시 모으기가 어렵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남원대회에서 전봉준과는 상이한 주장을 펼쳤던 김개남이 전봉준의 재봉기 참여 제의마저 참서를 운운하며 거절한 것은 그가 독자적 노선을 지키려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김개남이 독자적 노선을 지향하려고 했던 아니했던 결과적으로 김개남은 전봉준이 주도하는 삼례의 제 2차 봉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처럼 전봉준의 제 2차 봉기 진영에 참가하지 않았던 김개남은 전봉준이 충청도 논산에서 남북접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공주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10월 14일 경에 남원을 출발했다. 그가 남원에 머물러 있겠다고 내세웠던 讖書에서 말한 49일이 마침내 경과되었던 것이다. 이때 “김개남 부대의 농민군은 총을 맨 자만 8천 명이었고, 군대의 짐이 1백리에 끊이지 않았다.(《오하기문》)고 한다.

김개남은 10월 16일 全州城에 입성하였다. 전주성은 당시 전라감사 김학진이 전봉준 부대의 운량관이 되어 식량 수송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무혈입성하였다. 김개남은 전주성에 입성하자마자 새로 부임해 오던 남원부사 李龍憲을 처형하고, 고부군수 梁弼煥(어떤 기록에는 梁性煥), 순천부사 李秀弘을 처벌했다. 황현의 《오하기문》에 따르면, 김개남을 따르던 창우와 재인 등으로 구성된 1천여 명의 賤民 부대가 이때의 상황을 보고 모두 흩어졌다고 한다. 김개남은 이내 금산으로 직행해 금산, 용담을 점령하고 이어 진잠현으로 진격해 갔다.

전주를 떠난 이후의 김개남 부대의 행적에 대해 《오하기문》은 “김개남이 전주에서 삼례로 향하여 봉준의 후원이 되었다. 금산 함락”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무렵에도 전봉준은 김개남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근거는 〈公山剿匪記〉와 〈雜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산초비기〉에 따르면

“적병이 다시 논산에 모여서 여당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아울러 完山에 있는 김개남에게 협력하여 再擧하기를 요청하였다”하였으며, <잡기>에는“(공주의) 남으로는 은진, 논산에 적이 있으니 (이는)전봉준의 당으로 흩어졌다 다시 합하며…김개남의 후원을 불러 모은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봉준의 협력 요청에 대해 김개남이 실제로 협력했는지 또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지를 알려주는 근거는 남아 있지 않다.

김개남 부대가 금산과 용담을 떠나 지금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鎭岑縣을 점령한 것이 11월 10일, 이때의 관기록인 <진잠현 공형 보고>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라도 김개남포 5천여 명이 금산 등지로부터 와서 10일 신시에 본 읍에 머물고 있는 바 각 공해의 문호와 각 청의 문부를 모두 부수고 불사르고 또한 창고를 부수고 열어 환곡을 탈취해갔사오며….

이어 김개남 부대는 11일에는 회덕과 신탄진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청주로 치달았다. 그러나 청주성으로 진격해 간 김개남 부대는 청주병영의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에게 여지없이 패했다. 청주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13일 새벽에 호남 비류만여 명이 성의 3리쯤에 진을 지어 침범하므로 청주병영병과 일본군이 이를 깨뜨리고 추적, 살상자가 근 1백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錦營來札> 기록에는 “어제 화성의 전보를 보니 김개남 당이 청주를 來逼하였는데 병사가 격퇴하여 죽인 자가 심히 많았다 하니 또한 패하다. 혹 말하기를 김적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데 믿을 만한가?” 하였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청주를 공략했으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청주 병영병과 일본군에 의해 패한 김개남 부대는 진격해왔던 행로를 따라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13일 밤 그들은 진잠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러나 진잠에서도 역시 민보군에게 밀려 연산으로 패퇴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연산의 상황도 이들에게는 어렵기만 했다. 당시 안성군수의 보고에 의하면 “18일에 은진에 이른즉 일본 대대장이 연산에서 적을 깨뜨린 후 추적하여 머문 지 3일이 되었다 하고, 비류의 종적은 막연하여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15일에 연산에 도착한 김개남 부대는 이곳에서도 밀리는 전세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김개남이 태인 종송리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을 밝혀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오하기문》 11월초에 날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채 “봉준과 개남이 강경에서 합하여 저항했는데 또 패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경의 패퇴’ 이후 태인 종송리에서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은 묘연하다.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농민혁명의 막을 내리게 한 최후전투인 태인전투에 관한 기록에서조차 김개남 휘하의 접주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혁명 후반기에 취했던 김개남의 독자적 노선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5)

아무튼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전봉준과 김개남의 관계를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들의 갈등은 ‘남북접 대립설’ 못지않게 농민군의 패배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입증하고 있다.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정석모 일행을 당초 처형하려 했다가 전봉준이 처형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전해오자 오히려 살려둔 과정만도 이러한 갈등관계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들 사이의 갈등은 혁명의 방법과 지향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침소봉대하거나 지나치게 비약시켜 대립과 심화된 갈등의 관계로 규정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전봉준과 김개남은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적 관계가 훨씬 더 깊었던 데다 제 1차 기포 때부터 남원대회까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했던 점, 2차 기포 때 역시 연락은 오고 갔다는 점, 또한 김개남이 다른 진격로로 북상함으로써 농민군 세력을 결집시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군과 일본군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봉준이 김개남과 만나 재기를 도모하려고 避老里로 숨어들었다가 체포됐다는 점도 이들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관계로만 규정되는 것에 많은 여지를 제기하는 근거이다.<sup>6)</sup>

#### IV. 金開南 部隊의 最後

갑오년 11월 13일의 청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김개남 부대는 더 이상의 복상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길에 올랐다. 김개남 부대는 한 때 공주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후퇴하고 있던 전봉준 부대와 강경에서 합류했으나 朝日 연합토벌군의 추격에 밀려 제각기 길을 잡아야만 했다. 이후 김개남 부대의 행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봉준 휘하의 주력군이 벌인 마지막 전투인 院坪 泰仁전투에 김개남 부대도 참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개남이 마지막으로 체포된 곳이 태인이었음을 미루어 그의 부대 역시 태인에서 공식 해산했으리라는 짐작이 있을 뿐이다.

불같은 혁명의지로 항상 과감한 행동을 앞세웠던 김개남도 태인까지 후퇴한 이후에는 후일을 기약하며 몸을 숨겨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가 지칠 대로 지친 심신을 의탁한 곳은 태인 종송리(현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에 있는 매부 徐英基의 집이었다. 그렇지만, 12월 초이틀 이곳에 沁營(江華 수비병) 兵方 黃憲周가 이끄는 80여 명의 병정들이 들이닥쳤다. 이 날은 공교롭게도 불과 20여리 떨어진 순창 피로리에

5) 이 같은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6) 전봉준 부대와 김개남 부대의 관계를 종래의 대립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역할 분담 내지는 협력의 관계에서 재검토한 연구로는 李眞榮의 연구가 유일하다.(이진영,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 1995년 2월)

서 전봉준이 붙잡힌 날이기도 했다.

김개남의 체포경위를 전라감사 李道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狀啓를 조정에 올렸다.

30일에 김개남이 태인 지방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당일 申時에 심영 병방 황헌 주를 시켜 前哨隊官 朴承奎에게 병정 80명과 同營 捕校 3인을 인솔케 하고 嚮導를 대동시켜 진진케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雨雪을 무릅쓰고 80리 峽路를 疾馳하여 同縣 山內面 種松里에 이르러 김개남과 同黨 三漢을 急襲 捕捉하여 초 2일 酉時 경에 臣의 감영으로 압송해왔습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관련 기록 및 증언에 따르면, 김개남의 소재를 밀고한 이는 그의 옛 친구인 임병찬이었다고 한다. 태인에서 체포된 뒤 전주의 전라감영으로 압송된 김개남은 전라 관찰사 이도재의 심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개남은 “우리가 취한 행동은 모두 대원군의 밀지에 따른 것이었거늘 어찌 국문하려 하느냐”고 일갈했다고 전한다. 전라감사 이도재는 이 같은 김개남의 기개와 서슬에 놀라 당초 서울로 압송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를 곧바로 효수하고 말았다(《오하기문》). 앞서 인용한 이도재의 장계 뒷부분에 이 같은 정황이 이어진다.

이 賊魁는 邪說을 廣布하여 兩湖를 煽亂하고 官리를 살해하였으며 生靈들에게 毒痛을 주는 등 罪반 불법을 행한 바 枚擧키 어려우니 該衙門에 押上하여 처분을 기다림이 마땅할 일이오나, 현재 近邑에는 餘黨들이 아직도 다수 屯聚하고 있으니 중도에 搶奪당할 염려가 없지 않기에 金月 초3일 申時에 軍民을 西教場에 대대적으로 집합시킨 가운데 梟首하여 警衆하고 首級을 櫃에 담아 都巡撫營에 上送하였으며, 여타 三漢을 죄과의 경중에 따라 處決하였기에 그 緣由를 馳啓하옵니다.

전라감사 이도재는 ‘동학비도의 우두머리를 함부로 형살(刑殺)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의 밀지를 받았다는 김개남의 ‘폭탄선언’이 일으킬 파장과, 서울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우려해 체포 다음날 곧바로 처형해 버린 것이다. 김개남의 처형장으로 기록된 西教場은 천주교도들의 박해 장소로 유명했던 풍납문 밖, 오늘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초록바위 부근으로 알려져 있다. 《오하기문》에 전하는 그의 최후는 비통하기 짝이 없다. “목을 베고 그의 배를 갈라 간을 큰 동이에 담으니 보통 사람의 것에 비해 월등히 컸다.” “원수진 집안에서 다투어 간을 찢고 인육을 나누어 제사를 지냈다.”(仇家爭啖之 分其肉以祭) 전주에서 효수된 김개남의 수급은 서울로 올려 보내져 서소문 밖에 사흘간 梟示됐다가 전주로 옮겨와 다시 효시했다 전한다. 김개남을 불법적으로 즉결 처형했던 전라감사 이도재는 후일 越俸二等之典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이리하여 김개남은 육신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불꽃처럼 산화해 버렸다. 그의 나이 마흔 하나였다.

## V. 金開南의 個人史에 대하여

1894년 8월 17일 평양전투에서의 대승을 계기로 淸을 굴복시킨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인 간섭을 시작했다. 이 즈음 남원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김개남은 全羅左道의 농민군 7만여 명을 남원에 집결시켜 대회를 열었다.(《오하기문》)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이 달려와 “倭와 淸이 전쟁 중인데 어느 쪽이 이기든 이기는 군사를 우리에게 돌릴 것이다. 우리는 수가 많긴 하나 烏合之卒이어서 쉽게 무너진다. 각 고을에 농민군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시세의 흐름을 지켜보자”며 봉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뒤이어 달려온 손화중도 “전라도가 모두 우리를 호응하고 있지만 선망 있는 士族과 富民, 知識人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接長이란 자들이 愚賤하여 禍를 즐기니 인심의 향배를 알 수 있다. 사방에 우리 역량을 보존하며 筭全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개남은 “이 큰 무리가 한번 흩어지면 다시 합하기가 어렵다”며 두 사람의 제의를 거절,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오하기문》에 전하는 이상과 같은 내용은 김개남의 혁명적 열의와 성향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같은 혁명의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개남은 1852년(철종 4년) 9월 15일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현 정읍군 산외면)에서 金大鉉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후예인 道康金氏로 당시 천여 석을 하는 富農 집안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의 집안은 벼슬살이는 못했으나 인근에서는 글 잘하는 士族으로 대접을 받았다. 김개남의 이름은 永疇, 字는 箕範이었다. 동학에 입도하면서 介南 혹은 開南으로 이름을 고쳤다 한다.

제 1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김개남과 그의 직속부대가 이룬 성과나 흔적은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시기나 제 2차 동학농민혁명 때에 보여준 격렬한 행동들만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으로써 ‘포악함’ 또는 ‘냉혹함’이 그의 기질을 형용하는 어휘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그는 집강소시기에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전라좌도의 양반들을 가혹하게 징치했던 것으로 전한다. 그의 휘하에는 倡優와 才人 등 하층계급으로 구성된 1천여 명의 부대가 있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과감한 폐정개혁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개남은 189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라좌도 즉 금산·무주·진안·용담·장수·곡성·순천·담양·고흥 등지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는 봉건적 지배세력과는 철저히 타협을 거부했다. 집강소 통치기에 그는 군량미 등을 모아 지리산 화엄사에 비축하며 훗날을 대비했다고도 전한다.

김개남 부대의 급진적 성격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가 바로 음력 7월 27일(양력 8월 27일) 경에 개최된 남원대회라 할 수 있다. 당시 전라도 삼례에서 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던 전봉준은 그에게 통문을 보내 ‘복상할 테니 후원이 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거절 이유를 ‘南原을 차지하고 49일을 머물

러야 한다'는 讖書 기록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사실이야 어찌됐건 김개남은 전봉준의 주력부대가 북상하여 최시형 산하의 北接 농민군과 합류하여 논산에 대본영을 설치할 무렵(10월 중순)에야 남원을 나섰다. 또 공주전투에도 합류하지 않고 청주 쪽으로 진군했다. 이 때문에 김개남에게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초래하였다는 후세 史家들의 비판이 따랐다. 예를 들면, 이이화 선생은(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현 서원대 석좌교수)는 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전봉준 세력을 질투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호언하며 공을 먼저 이룩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혹평했으며, 정창렬 교수 역시 《갑오농민전쟁연구(1991)》에서 “官民合作의 집강소 질서를 세우려는 전봉준과 이를 거부하고 對富民 투쟁과 雪冤 위주의 급진적 개혁노선을 편 김개남과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김개남이 전봉준의 뜻을 좇아 제 2차 동학농민혁명에 합류했으며 진로를 청주 쪽으로 택한 이유가 일본의 공격로나 반농민군세력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앞의 이진영의 연구)이 제기되고 있어 ‘전봉준-김개남의 대립 갈등’ 문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김개남은 지리산 중심의 포병 8천을 앞세우고 청주로 향하던 중 전주에 이르러 새로 부임하는 남원부사 李龍憲과 고부군수 梁弼煥을 체포해 굴복하지 않자 그대로 목 베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기개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후 김개남은 금산 부근에서 근 한달 여를 머물며 분탕질을 했다. 이 기간은 전봉준이 총력전을 펴며 공주 싸움 등을 벌일 때였다. 그러나 천하의 김개남도 기우는 대세를 어찌하지 못했다. 淸州城 전투에서 잇달아 패하고 태인현 종송리의 매부 서영기 집에 숨어 있다가 12월 초이틀 林 모(이곳 출신 의병장 林炳讚이라는 설이 유력함)의 밑고로 江華兵方 黃憲周에 붙잡히게 된다.

김개남이 붙잡힌 마을은 후에 ‘宗聖’이라는 이름이 하사됐다. 그는 일단 전주 감영으로 이송됐으나 전라감사 이도재가 김개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의로 처형해 버린다. 1894년 12월 13일의 일이었다. 그의 나이 42세였다. 그의 시신은 남원 일대에서 찢박받은 양반·토호들에 의해 짓밟혔고 그의 간을 꺼내 씹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머리는 서울로 이송돼 12월 25일 서소문 밖에 3일간 효시됐다. 전라감사 이도재는 함부로 처형했다는 하여 정부에 처벌을 요청한 이노우에 카오루의 요구에 따라 ‘越俸二等之典(오늘날의 감봉처분)’을 받게 된다. 8척 장신에 호령을 하면 앞산이 쩌렁거렸다는 무골은 판결문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갔다. 따라서 입과 입으로 전해온 김개남의 진짜 모습은 어렵פות한 신화에 싸여 있다.

※ 맺음말은 현장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남원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

(2006년 11월 25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전채하였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